

반 성 문

존경하는 재판장님께, 저는 이번 사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님을 폭행한 피고인 ○○○입니다.

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. 사건 당시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경찰관님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. 그 순간에는 제 행동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,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제가 저지른 행위가 공권력과 사회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.

사건 직후부터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,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관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 말로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한 마음이었고, 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님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관은 개인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임에도, 저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경찰관님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.

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,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. 사건 이후 저는 왜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라는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를 반복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.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,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.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,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께는 더욱 존중과 협조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

이번 사건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다시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,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과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제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경찰관분께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.

2025년 ○월 ○일

피고인 ○○○ (서명)